

가장 현실적 16강 진출법...한국, 스웨덴·멕시코와 1승1무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구촌 최대 축제' 러시아월드컵

이달 중순부터 16강 프로젝트 가동...3월부터 완전체로 유럽원정행

2018 무술년에는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전인 월드컵이 열린다. 길게는 2년에 걸친 험겨운 지역 예선을 통과한 32개국은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에서 하나 뿐인 트로피를 놓고 일전을 벌인다.

한국도 당연히 '꿈의 무대' 진출 자격을 얻었다. 과정은 무척 험난했다. 마지막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도 경쟁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어 애를 태워야 했다. 최종예선 도중 감독 경질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끝에 가까스로 9회 연속 본선행에 성공했다.

예선 성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러시아에서는 모두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1승 1무 크게 잡으면 16강 진출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두 차례다. 국내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로 처음 토너먼트를 맛봤고, 허정무 감독이 팀을 이끈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는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러시아에서 만날 상대들은 만만치 않다.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F조에 속했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모두 우리보다 한 수 위다. 늘 진출권 중 하나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월했던 조별리그는 없었다. 하지

만 이번에는 1998년 프랑스월드컵 조 편성(멕시코·네덜란드·벨기에)을 연상케 할 정도로 뻘뻘한 느낌이 든다. 당시 한국은 1무2패(2골 9실점)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조 최하위에 그쳤다. 최종예선에서 승승장구하며 국민영웅으로 떠오른 차범근 감독은 중도 경질의 수모까지 당했다.

한국은 6월 18일 스웨덴과 첫 경기를 벌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첫 경기의 중요성을 떠올리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산이다. 유럽예선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는 스웨덴으로부터 탄생했다. 영원한 우승후보 이탈리아의 탈락을 이끈 팀이 바로 스웨덴이다. 이탈리아의 이름을 지웠다든 사실 만으로도 스웨덴의 저력을 쉽게 알 수 있다.

맨유 이적설에 휩싸인 에밀 포르스베리(라이프치히)가 공격을 이끌고 유럽예선에서 8골을 넣은 마르쿠스 베리(알 아인)도 건재하다. 여기에 대표팀을 떠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맨유)까지 가세할 경우 한국 수비진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에는 멕시코와 마주한다. 월드컵에서의 맞대결은 프랑스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하석주의 프리킥 골로 리드를 잡은 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골맛을 본 하석주

가 퇴장 당하면서 1-3으로 역전패했다.

멕시코는 6회 연속 16강에 오른 토너먼트 단골손님이다. 박지성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함께 뛰며 '치차리토(스페인어로 작은 원뿔뿔)' 히비에르 에르난데스(스웨덴), '거미손' 기에르모 오초아(스탕다르 리에주) 등이 버티고 있다.

마지막 상대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독일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축구를 구사한다. 4강 전에서는 브라질을 무려 7-1로 대파하며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유럽예선에서는 유일하게 10경기를 모두 풀어 담았다. 43골을 넣는 동안 4골 만을 내줬다.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 르로이 사네(맨체스터 시티)가 버티는 공격진과 메수트 외질(아스날),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가 중심을 잡는 미드필드진, 마크 뮐러(스카이에른 뮌헨)가 포진한 수비라인 모두 완벽에 가깝다.

한국 차차에서는 스웨덴, 멕시코를 상대로 최소 1승1무를 기록하고 2승으로 16강행을 확보한 독일과 만나는 것이 최상이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토너먼트 진출을 타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신태용 감독 체제로 월



드컵에 도전한다. 현역 시절 K리그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면서도 유독 월드컵과는 연이 닿지 않은 신 감독은 지도자로서 한풀이에 나선다.

16강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 본격 가동된다. K리그들을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 손발을 맞춘다. 유럽과 공격수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수비 핵심 멤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3월에는 완전체로 유럽 원정을 떠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인 만큼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시티) 등 정예 멤버를 모두 소집할 수 있다. 폴란드와의 원정 평가전(3월 28일)도 예정됐다. 가상의 독일, 스웨덴을 상대로 전력을 탐색하고 유럽의 분위기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5월 21일(예정)에는 최종 엔트리 23명 정에 멤버가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한다.

신 감독은 "갑자기 감독을 맡아 월드컵에 9회 연속 나가는 것에만 집중했다. 2017년 10월 평가전에서는 완전체가 아닌 반쪽 선수단으로 유럽에 나갔는데 축구 팬들이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11월 콜롬비아, 세르비아전 그리고 동아시아컵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동아시아컵에서 우승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다.

한국의 행보 뿐 아니라 수많은 슈퍼스타들의 존재는 러시아월드컵을 기다리는 축구팬들을 벌써부터 들뜨게 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발롱도르를 양분한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월드컵 우승을 위해 러시아로 향한다.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는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아이슬란드 등 만만치 않은 팀들과 D조에 묶였다.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을 통해 메이저대회 우승 감증을 해결한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스페인, 모로코, 이란과 B조에서 경쟁을 펼친다.

이밖에 2억2000만 유로(약 2846억원)의 천문학적인 몸값을 찍은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라선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 해리 케인(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집주주의 중심에 있는 벨기에 대표 케빈 더 브라운 등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건곤일척 승부를 겨룬다.

박성현 열풍, 새해에도 계속...LPGA '주목해야 할 선수'

"올해 2년차...어떤 성적 거둘지 관심"



해가 바뀌어도 박성현(25·KEB 하나은행)을 향한 관심은 여전하다. 올해도 박성현 열풍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강타할지는 주목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2일 '2018년 주목할 선수 4인'을 지목하며 박성현을 언급했다. "많은 선수들이 성공적인 해를 보낸 다음 시즌에 성공을 이어가거나 부진에 빠지기도 한다"면서 박성현이 LPGA

2년차인 올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LPGA 투어에 뛰어난 박성현은 데뷔 첫해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우승과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며 2승을 거뒀다.

총상금 233만5883달러(약 25억 6000만원)를 벌어들이며 상금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유소연과 함께 '올해의 선수' 상을 공동 수상하며

신인으로는 1979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8년 만에 3관왕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새 시즌을 앞두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머무르며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달 22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일랜드'를 2018시즌 첫 대회로 삼고 있다.

LPGA는 박성현 외에 미국 동포 미셸 위와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 벨리 코르다(미국)를 올해 주목할 선수로 꼽았다.

미셸 위는 2016년 상금 랭킹 100위 밖으로 밀렸으나 지난해 톱10에 8차례 오르며 상금 랭킹 19위를 차지했다. 여러 차례 우승 경쟁을 펼치는 등 2018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LPGA 통산 14승의 리디아 고는 지난해 데뷔 후 처음으로 무승에 그쳤다. 코치와 캐디는 물론 장비까지 모두 교체하는 모험을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 시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주목된다.

지난해 박성현과 함께 투어에 데뷔한 벨리 코르다도 관심의 대상이다. 제시카 코르다(미국)의 동생이기도 한 벨리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3위를 하는 등 가능성을 보였다.

뉴스스

포항에서 땀 완델손, 전남 드래곤즈로 임대 이적

공격 전술 다변화...오는 7일 메디컬 테스트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 완델손이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한다. 전남은 2일 측면 공격력 강화를 위해 완델손을 1년 임대 영입했다.

완델손은 정확한 왼발 크로스와 화려한 테크닉을 이용한 측면 공격력을 주무기로 한다. 윙 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로도 뛸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전남은

완델손의 합류로 공격 전술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대전 시티즌을 통해 한국과 연을 맺은 완델손은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을 거쳤다. K리그 66경기에 출전해 16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완델손은 7일 압구정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스



이세돌 vs 커제 새해 벽두 빅매치...오는 13일 제주서

알파고와 직접 맞선 '유이(唯二)'한 기사로 유명



이세돌 9단이 '중국랭킹 1위' 커제 9단과 제주도에서 새해 벽두 빅매치를 벌인다.

3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이 13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에 위치한 해비치 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한국과 중국의 간판 기사인 이세

돌·커제 9단은 알파고와 직접 맞선 '유이(唯二)'한 기사로 유명하다. 알파고 대결 이후 둘 간의 첫 만남이어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세돌 9단은 2016년 3월 구글 알파고와 '딥마인드 젤린지맥'을 벌여 1승 4패를, 커제 9단은 지난해 5월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알파고

에게 3전 전패를 기록했다.

이세돌 9단은 커제 9단에게 값을 빛이 많다. 두 기사는 2015년 11월 처음 만나 2016년 11월 마지막 대국을 벌였다. 공식 맞대결은 1년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이세돌 9단은 공식 전적에서 3승 1패, 승률 23.08%로 커제 9단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이9단은 2016년 제2회 몽백합배 결승5번기 최종국에서 반집패하며 우승을 놓쳤고, 제17회 농심신라면배 우승 결정국에서 패하며 중국에 우승컵을 넘겨줬다.

2015~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4강에서는 2년 연속 만나 커제 9단에게 결승 티켓을 헌납했다. 특히 세계대회 결승 등 큰 경기에서 여러 차례 패한 바 있어 이번엔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 제한시간은 각자 40분에 초읽기 1분 1회씩이 주어진다.

맞대결 승자에게는 3000만원과 현대자동차 소형 SUV(이세돌 9단 승리 시 '코나', 커제 9단 승리 시 중국 현지 모델 '엔시노')가 보너스로 제공되며 패자는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SK 김광현·한동민 등 플로리다 재활캠프

부상에서 회복 중인 SK 와이번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30)과 한동민(29) 등이 미국에서 재활 훈련을 이어간다.

SK는 3일부터 2월 2일까지 플로리다주 브래던턴시 IMG 아카데미에 플로리다 재활 캠프를 차린다고 밝혔다.

김광현, 지난해 끝 재활캠프에 참가한 야수 한동민·김동엽(28), 투수 김광현(22)·전유수(32) 등 5명이 참가한다. 박찬민 컨디셔닝

코치가 동행해 재활을 돕는다.

IMG 아카데미는 다수의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비시즌 자율 훈련과 재활 훈련 등을 하는 곳이다. 첨단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과 체계적인 훈련·재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월 팔꿈치 수술을 받고 올 시즌 내내 재활에 매달린 김광현은 11월 일본 가고시마 유망주 캠프에 참가해 컨디션을 조율했다.

지난해 3월 왼쪽 팔꿈치 인대

집합 수술을 받은 김광현과 2017 시즌 뒤 난관치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한 전유수와 김동엽. 지난해 8월 도루를 하다 발목을 크게 다쳐 시즌을 일찌감치 접은 한동민은 지난해 12월 끝 재활캠프에 이어 이번 훈련에 참가해 복귀를 준비한다.

김광현은 "재활 선수들은 혹한기에 국내에서 훈련하기에 다소 부담이 있다. 구단에서 재활 선수들을 많이 배려해줘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몸 상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